

# 전주한옥마을서 만나는 청년 예술가 공연

사단법인 더문화, 6일 'NOW청년PROJECT IV' 개최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2024 NOW청년PROJECT IV'가 사단법인 더문화 주최로 전주한옥마을 상생광장에서 열린다.

2024NOW청년PROJECT IV는 청년예술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더문화가 'NOW청년PROJECT'를 기획하여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져 희망을 잃어가고 꿈과는 멀어진 다른 일을 찾아야만 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무대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하여 올해 4회째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NOW청년PROJECT IV' 공연에서는 2020년 결성된 중증 장애 청년들로 이루어진 '파바밴드'가 특별히 참여한다.

파바밴드는 고등학교 밴드 활동을 했거나 음악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로, 음악적 재능을 통해 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 희망을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팀 이름인 '파바밴드'는 유명한 뮤지션이 되어 공연비가 통장으로 '파바 파바' 들어 오길 바라는 유쾌하고 순수한 바람을 담아 재미있게 지어진 이름이다.

이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바밴드' 팀원으로는 최광호, 김은비, 김초은, 유정원 등이 있고, 연주곡에는 하늘 바라기, 각테일 사랑, 나성에 가면 등 밴드와 궁합이 좋은 곡들로 10월 6일 'NOW청년PROJECT IV'의 오프닝을 활짝 열어줄 예정이다.

파바밴드의 공연 뒤에는 한옥 정일 콘서

트 출연 및 인문밴드 레이로도 활동 중인 '이상옥 밴드'가 2024NOW청년PROJECT IV에 출연하여 무대를 장식한다.

이상옥 밴드에는 리더인 기타리스트 이상옥, 대금 이동준, 소리 이정인, 소프라노 김경은, 바이올린 신이나, 콘트라베이스 정효준 등 전북지역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이상옥 밴드'에서 준비한 연주곡으로는 대금과 기타 듀엣으로 Theme of Princess Mononoke, 바이올린과 기타 듀엣에 인생의 회전목마, 소리 이정인과 바이올린, 대금, 기타, 콘트라베이스가 함께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에서 경험하기 힘든 악기 구성과 풍부한 사운드의 진도아리랑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3년째 참여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상옥은 NOW청년PROJECT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단법인더문화의 나무 청년프로젝트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사회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새로 조성되어 예쁘게 꾸며져 있는 전주 한옥마을 상생광장에서 관객들과 거리감 없는 교감을 통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올해 파바밴드와 같이 매년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더문화 이문정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관광과 더불어 전주의 시원한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오는 6일 '2024 NOW청년PROJECT IV'가 사단법인 더문화 주최로 전주한옥마을 상생광장에서 열린다.

# '전승공예의 정수' 30여점 작품 만나다

전북자치도 전승공예연구회, 7일까지 임실예총 예술공감홀서 작품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전승공예연구회가 오는 7일까지 임실예총 예술공감홀에서 '예맥(藝脈): 예술의 즐거움, 전승공예의 정수'를 주제로 제28회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수, 한지, 나전칠기 등 작가 20명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로써 3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연과 체험행사도 있어 더욱 풍성하게 꾸러진다.

지난 9월 28일 김동식 선자장의 시연을 시작으로 박순자(침선), 김대성(부채) 장인의 체험을, 29일에는 김선자(매듭장), 김정화(칠보) 장인의 시연, 권원덕(소목) 작가의 체험을 각각 진행했다.

10월 5일에는 김종연(목조각장), 강의석(청자) 이수자의 시연과 윤성호(지우산), 전경례(지수) 이수자의 체험, 6일에는 한경치(합죽선), 안시성(웅기장) 장인의 시연, 장정희(침선) 이수자의 체험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작품전은 예맥(藝脈)을 주제로, 전통공



예의 정수를 만날 수 있으며, 시연을 통해 장인들의 숨결도 직접 느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 한글박물관 공동 전시

'서울 구경 가자스라, 입을 따라 갈까부다'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과 함께 특별전 <서울 구경 가자스라, 입을 따라 갈까부다-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의 지역 순회전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조선 후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상업출판물인 방각본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두 권의 책 한양가와 춘향전은 한글로 된 방각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시를 통해 한양가와 함께 전주의 지역 출판문화를 바라보고 한글 문헌으로서의 완판본 가치를 재조명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 '아름다운 수도, 한양을 노래하다'에서는 왕의 공간인 궁궐과 나라 살림 맡은 관청 및 처소 사람들의 소개와 관련 유물들을 함께 볼 수 있다. 2부 '할기차다 한양 거리, 변화하고 신기하다'에서는 관아가 있는 육조거리, 옥자지절 시장, 별감의 승전 놀음, 왕의 능행 길, 궁에서 열린 과거 시험장 풍경 등을 관련 유물 및 인터랙티브 영상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3부 '향긋한 이야기 꽃, 완산에서 피어나다'는 전라감영에서 만든 책 완영본과 전주 지역의 책방에서 만든 책 방각본을 통해 전주 지역의 출판문화를 소개하고, 한글 고전소설의 대표작



춘향전의 다양한 모습과 관련 유물들로 구성됐다. 국립전주박물관 장진자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는 한양가와 함께 완판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전주의 출판문화를 더해 풍성한 우리 말글 이야기의 재미"며 "서예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과 한글박물관이 협력한 뜻깊은 전시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어린이 한복 교육'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올바른 한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한복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고유 의복인 한복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경험과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당이 자체 개발한 교구를 활용해 △삼국시대 전통 복식 색칠 도안형 교구 △조선시대 남·녀 한복 입기 스티커형 놀이 교구 △교구를 통해 배운 한복을 직접 입어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당은 지난 9월 2~13일 전주시 어린이집 10개소 90여 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11월 8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30학급 5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생태관광 팸투어 진행

남원시가 정령치습지, 서어나무숲 등 국가생태관광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15명이 참가해 정령치 습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람, 마을숲견기체험, 목기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여행작가협회는 전문 여행작가 단체로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여행작가들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에 여행기사를 기고하거나 여행서적을 저술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세계 12,843개 교회가 신천지 말씀을 배우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계 1,352개 교회가 간판을 신천지 소속으로 바꾸달았습니다.

## “왜일까요!?”

# ‘성경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명은 하나님께서 성경(계시록 21:1)에 약속하신 이름 그대로인 ‘새 하늘 새 땅(新天地)’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입각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아 신앙합니다. 이롭도, 신앙도, 마음과 행실도 모두 성경으로 지어졌습니다.

전 세계 신앙인들이 ‘성경으로 지어진 교회’에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